"21세기 신행혁신 이끌어야"

새 신도회장 맞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중앙조직 1차 정비-사업확정등 '활기'
재정 운영 자율성 확보위해 화합필요

지난 8월20일 새 회장에 백창기씨(광주전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를 선출한 조계종 중앙신도회(이하 중신회)가 16일 회장 취임법회(오후2시, 조계사 대웅전)를 계기로 중앙조직을 재건하는등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중신회는 9일 사무처에서 제11차 운영회의를 열고 수석부회장에 명호근, 상임부회장에 안동일씨와 조계사신도회장 등 15명의 부회장을 선출했다. 또 포교원장 정련, 교육원장 일면스님, 고은 서돈각 손현수 주영운 한갑진씨 등 12명을 고문에 추대하고 공종원 민병천 명국환 신광식 안숙선씨 등 21명을 지도위원에, 조영황 민병준씨를 감사에, 김수필 안영대씨 등 8명을 이사에 각각 선임하는 등 중앙조직을 1차적으로 정비했다.

중신회는 또 △월1회 법회 참석하기 △1인 1사회봉사활동 참여 △불교방송 청취 및 교계신문 구독운동 △모범신행 발굴, 표창 △법회활동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불자신행혁신 운동'과 생명(환경)운동 및 (지역·도농)공동체 운동 등 불교의 가치실현을 위한 사회활동, 사찰 및 지역신도회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사업을 중장기 사업기조로 확정했다.

올 하반기에는 지역 단체현황 및 연합활동에 대한 조사사업과 지역순회 간담회의 실시, 교무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2000년 사업기획단 구성, 중앙신도회 및 교구신도회 깃발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중앙신도회 현판

중신회가 회장 선출과정에서의 불공정 시비와 일부의 무효 소송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은 3년여간 표류해 온 중신회가 기왕 새 회장을 선출한 만큼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회원들의 여망이 강력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회장 선출과정에서 신도회 운영의 자율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새 회장에 반대했던 대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중신회의 정상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집행부에 협력한 것이 중신회의 새 출발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따라서 중신회는 이번의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대의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총무원의 간섭과 개입이 필요없을 정도로 모든 의사결정이 자율적 민주적으로 진행되는 신도대표기구로서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각급 신도회를 활성화시키고 신도교육을 통해 불자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해, 21세기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신도운동의 전형을 새롭게 만들어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총무원 역시 중신회를 예전처럼 종단의 산하 단체 정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재가단체 대표기구로서의 위상정립과 재가불자운동의 구심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신회와 총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종단에 대한 외호단체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활발하고 자율적인 신도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정자립을 위한 신도교무금의 이관문제와 재가자의 종단 종무행정 및 사찰재정 참여 확대 등 민감한 문제를 관계법령의 보완을 통해 대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창기 신임회장은 21세기를 보내고 21세기를 맞는 시점에서 어느때보다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 새로운 정보화·문화의 시대에 맞는 신도운동을 펼쳐 종단과 함께 불교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선도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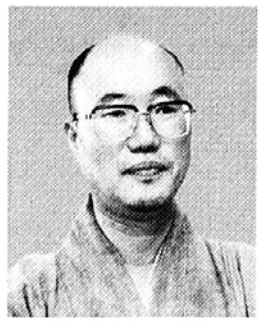
결국 중신회의 자구노력과 개혁의지와 함께 이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종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총무원의 전향적인 자세가 중신회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란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간 중신회를 지루하게 지켜본 불자들은 출가와 재가가 불교공동체의 두 수레바퀴가 되어 21세기를 선도하는 법륜을 굴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여론수렴에 최선" "재정마련 무리없다"

성역화 집행위원장 원택스님



조계사성역화 추진위 집행위원장 원택스님은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재원마련 방안, 내년 4월 착공 등 이후 진행계획을 밝혔다. 원택스님은 "여론수렴 절차의 문제, 전 총무원장 때 작성한 마스터플랜의 폐기에 따른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등 여러 비판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사부대중의 뜻을 모으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간담회 내용.

-대웅전이 서쪽으로 치우친 모양을 하고 있는데, 대웅전 이전계획은.

▲대웅전을 해체해 이전하는데 40억원이 필요하다. 또 목재가 오래 되어 실제로는 70~80억원이 든다. 공사기간도 늘어난다. 대웅전을 자리잡을 당시 여러 스님들이 요모조모 따져 자리를 잡았는데 쉽게 옮길 수 있겠는가. 그러나 아직 밑그림을 그린 것 뿐이다.

-총무원청사를 봉은사나 중앙승가대 개운학사로 이전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조계종의 상징적인 사찰인 조계사를 떠난 총무원은 단순한 사무공간에 불과하다. 조계사를 의지한 총무원이어야 정신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원장스님의 생각이다. 승가대 개운학사로 청사를 이전하자는 방안도 나오는데, 개운학사는 중앙승가대 운영비 마련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다.

-조계사 성역화사업에 종도들의 관심이 적은데.

▲많은 스님들이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 처음에는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다. 성철스님 사리탑을 건립할 설계공모를 하고 현장설명할 때 종무소에서는 아무도 나와보지 않았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니 터가 넓느니 하며 말이 많았다. 청사를 철거할 때쯤이면 관심이 커질 것이다. 앞으로 사부대중의 뜻을 모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청사 철거 이후 이주 대책은.

▲조계사 주차장 진입로 옆에 600평 규모의 가건물을 지어 총무원과 교육원이 입주하는 방안이 좋은 것 같다.

-착공 시기는.

▲4월쯤 착공할 것이다. 기본설계에 3개월, 실시설계에 2개월쯤 걸린다. 철거도 빨라야 내년 3월경이 될 것이다. 시공사 선정은 설계도가 나온 후에야 가능하다.

-재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현재 청사건립특별회계 적립금 32억원이 있고, 올해 20억원이 분담금으로 책정돼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 3년 동안 30억씩 분담금을 내면 150억원 가까이 모아진다. 공사비를 200억원 내지 250억원으로 잡아도 특별회계 150억원에 100억원을 더 보태는 것이다.

-청사 신축에만 집중돼 있고 불교회관도 없다는 불만이 있는데.

▲청사 신축은 1단계 사업이고, 앞으로 10층 정도의 불교회관을 세우는 것을 이후 기본·실시설계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다.

-재원 마련의 한 방안으로 청사에 박물관을 입주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청사 한 층에 들어서는 박물관은 진열장 구실밖에 못한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목어 눈감고 귀막고

지난 여름 지리산에 다녀왔다. 전화도 텔레비전도 없는 산속에서 태고의 천지, 그 숨결에 젖어 보낸 일주일. 지리산은 그 웅혼하고 쇄락한 기운으로 내 가슴의 탁하고 비릿한 냄새를 씻어 주었다. 지리산은 문득 자비의 손길이었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나를 구원할 수는 없다. 여래장이나 불성은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영원에 속해 있고, 또 그 마니주가 빛을 발하게 되는 인연도 나밖에서 오는 것이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경 혹은 세계는 중요하다. 그것은 단순한 물질의 배치로 환원되지 않는다. 공간은 나름의 표정과 의미를 통해, 인간의 정신을 조형한다. 집과 고향을 떠올려보면 금방 수긍이 갈 것이다. 사찰의 공간 또한 그러하다. 지치고 쇠락한 영혼에 생기를 주고, 세속에 찌든 가슴에 청량한 영원의 샘물을 주는 곳이 그곳이다. 차라리 퇴락한 대로 두라. 천박한 콘크리트로 발라놓은 불상과 건물은 비수보다 더한 상처와 오욕과 구토를 일으킨다.

환경의 주축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나는 남의 일부이다. 자성은 없다. 타자로 하여 나의 존재가 비로소 성립한다. 결국 나는 내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다. 나란 존재는 너에게, 우리 사회에, 그리고 자연의 식구들에게 과연 무엇인가.

나의 존재 자체가 너를 오염시킬 수도 있고, 너를 정화시킬 수도 있다. 그 인연의 공간은 실무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고 미학적이고 정감적이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잔잔한 감동들이 사회에 끼치는 파장은 엄청나다. 그런데도 그런 뉴스나 프로그램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피디와 방송담당자들을 소리쳐 깨워야한다. 우리의 뉴스는 참혹하고 파렴치한 장면만을 내보내고 있고, 여의도는 인간의 기만과 타락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경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라야식의 종자가 정화되어야 현행의 건강을 기약할 수 있다. 텔레비전을 끄고 살아야할 모양이다. 현실이 어차피 환상이라면 눈을 감고 사는 것도 길이요, 수행이다.

한형조(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본지논설위원)

"스님전용병원-복지원 세워야"

조계종 복지재단 스님 609명 '승가복지' 설문

노후거취 사찰 선호
비구니 스님 "노후불안"

대다수 스님들은 스님전용병원과 노후복지원 건립이 가장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구스님보다는 비구니스님들이 노후에 대해 더 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조계종 복지재단(대표이사 고산)이 지난 6월20일부터 8월20일까지 두 달간 스님 6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승가복지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것으로, 그동안 논의수준에 머물던 승려노후복지원 건립이 이를 계기로 가시화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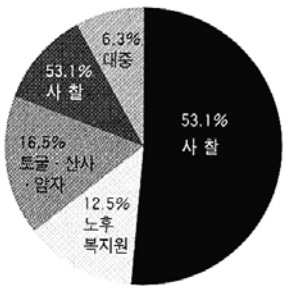
설문은 복지재단이 승가복지사업에 대한 스님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교구본사 스님들과 종회의원, 각 지방사찰 주지스님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609명의 응답자중 비구스님은 395명(64.9%) 비구니스님은 214명(35.1%)였다. 법랍별로는 11~20년이 224명(36.8%)으로 가장 많았고 21~30년(26.4%) 31~40년(20.7%) 10년이하(10.3%) 41년 이상(5.7%)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항목은 승려복지를 위해 종단이 꼭 해야할 분야의 우선순위. 전체응답자중 31.2%(175명)가 스님전용병원을 꼽았으며, 26.8%(150명)가 노후복지원을, 17.5%(98명)가 의료보장을, 14.5%(81명)가 노후연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비구니스님은 스님전용병원을, 비구스님은 노후복지원을 우선적으로 꼽아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여성계통의 질병을 앓게 되는 비구니 스님들이 일반병원을 찾는데 큰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스님전용병원 건립도 노후복지원 못지않게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승려노후복지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6.2%(525명)이 찬성했으며, 비구·비구니 스님의 '찬성' 비율은 거의 비슷했다.

승려복지 위해 종단이 해야할 일



노후 거취 선호도

스님들의 노후대비 실태를 묻는 질문에서 노후연금에는 17.7%(108명), 암보험·생명보험 등 각종 사보험에는 30.5%(186명), 국민연금에는 19.5%(119명)가 각각 가입했다는 응답이 나왔으며, 전체 응답자중 266명이 한가지 이상 항목에 응답해 응답자의 43.7%가 자신의 노후 및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 세 항목 모두 비구니 스님들의 가입정도가 평균보다 10%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구스님보다 비구니스님들의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노후거취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응답자 448명중 53.1%(238명)가 사찰을 꼽아 압도적이었으며, 다음으로 토굴·산사·암자가 16.5%(74명), 노후복지원 12.5%(56명) 본사 11.6%(52명) 등의 순이었다. 또 노후복지원 설립에 찬성한 525명중 466명(88.7%)이 수행과 요양을 겸할 수 있는 노후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사실은 노후복지원 건립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자신은 노후복지원보다는 사찰에 머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어서 흥미롭다.

이밖에 노후복지원이 설립될 경우 종단차원에서 운영해야 한다(73.7%)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으며, 비구·비구니스님을 함께 수용하는 통합운영보다는 분리운영해야 한다는 견해(64.6%)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명우 기자

결 의 문

우리는 오늘 개최한 임시종회에서 토의되고 결의된 모든의안들을 향후 일보 전진하는 종단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일사불란한 애종심으로 종조 원효성사의 교시를 받들어 전법도생에 정진할 것을 마음 다지며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다 음

1. 우리는 1997년 12월 20일 제 37회 정기 중앙회의에서 결의된 모든 의안을 적극 실행하고 따를 것을 촉구한다.

2. 우리는 현 총무원 체제를 적극 지지하며 전 종도는 일치단결하여 투철한 애종심을 가지고 종단발전에 기여한다.

3. 1989년도에 법란을 야기 시켰던 일부를 퇴출시켜 현 총무원 체제가 발족되면서 종단은 종조의 뜻을 받들어 화쟁정신으로 결속 정진하였으므로 인하여 오늘의 종단이 안정 운영되고 있음은 전 불교계가 공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년도에 법란을 야기시킨 당사자인 종정 이법홍 화상께서 또 다시 오늘의 법란을 획책하여 전 불교계와 사회에 빈축을 사게하고 있음은 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 종단의 숭고한 종지구현을 위하여 이번만은 종정스님을 비롯한 일부 몰지각한 퇴출자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처벌을 대내외적으로 강행 할 것을 결의한다.

4. 본 종단의 법난이 야기되는 원인은
첫째, 종정 이법홍 화상께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130번지에 소재하는 삼보의재 대한불교원효종 소유 안양암을 불법하게 매각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이를 저지하려는 승려와 신도들과의 피나는 법정싸움 끝에 종단소유인(이태준 노장으로부터 기증받은 삼보재) 안양암을 유실케 하였음은 재판의 결과인 판결문이 입증하고 있는 치욕적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뉘우침이 없고
둘째, 경주시 배동에 소재하는 본 종단 소유의 유일한 전통사찰이며 종찰인 포교원 망월사마저도 불법하게 처분하고자 하여 종단의 합법적인 결의 절차를 무시한 채 임의 처분코자 하는 등 승려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와 허욕이 이번 법란조성의 저의임으로 본 종도들은 종단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이들의 불순한 동기를 뿌리뽑아 다시는 이러한 법란이 발생되지 않게 할 것을 결의함.

5. 본 종단은 위에서 밝힌 삼보재의 보존과 종단의 종지를 구현하는 실천방법으로, 우선 본 종단 소유인 삼보재를 (가칭) 재단법인 대한불교 원효종 설립에 기본 재산으로 출연 할 것을 결의함. 망실위기에 청한 경주시 배동에 소재한 망월사 7만여평의 재산을 다시 본 종단의 재산으로 회복 보존케하는데 피나는 노력과 재판을 거쳐 본 종단 명의로 회복시키는데 온갖 정성을 기울여온 총무원장 무진스님의 참된 애종정신에 뜻을 같이 하여 명실공히 대한불교 원효종의 발전에 일치단결하여 헌신할 것을 결의함.

6. 이상과 같은 사실로 하여금 불명예스러운 종단의 법란이 10여년 동안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 왔음으로 해서 종단의 명예가 실추되어 종단 자체가 파산 내지는 해산의 위기에 처해 있을적에 애종심이 강한 승려와 신도들이 현 총무원정을 중심으로 뭉쳐 종단 재기에 헌신 노력한 결과 오늘의 원효종은 명실공히 전국 250여 사찰에 이르렀고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도 분원이 설치 되어 날로 교세확장이 되고 있어 미래에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명 깊게 느끼신 종정스님께서도 극구 칭찬하고 계셨음으로 해서 1997년 12월 20일 제 37차 중앙종회를 개최케하여 노구의 몸이 종단업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힘이겹고 종단 발전을 위해서도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종회 회의석상에서 발전적인 선시를 하셨음으로해서 종헌 종법 개정결의를 단행하게 된 것 아닙니까?
타 종단들도 종정 중심제에서 총무원장 중심제로 종헌 종법을 개정하여 장족에 발전을 하고 있다는 선시가 우리 종회의원들의 귓전에 생생히 울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종정예하께서 종령으로 종회의 해산이라는 불법과 무법의 종령을 선포한 사실에 대하여 종헌 종법 어느 조항을 적용하여 무식하고 무지한 종회 해산을 신문에 공고했는지 지상을 통하여 분명하게 해명해 주시길 우리 종도들은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의 종단이란 거대한 조직이 종정예하의 기분에 의하여 존폐가 결정되고 종무행정이 불법하게 집행되는 종단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랜 세월동안 종단 내부에 치부를 자체적으로 소화 해온 우리 종도들의 깊은 고충을 더 이상 참고 견디기가 어려운 고비에 이르렀으므로 만천하에 고개 숙여 공개할 것을 결의함.

종정 예하께서 종도들의 금번 요구사항에 대하여도 묵살하실 경우에는 만부득이 종정 직무정지 가처분을 비롯하여 종정예하의 위법사실을 취합 적시하여 마지막 법란의 종지부를 법정에서 결정케하여 승복토록 하여 본 종단의 불명예를 말끔히 종식 시킬 것을 확실하게 결의함.

불기 2543년(1999) 9월 1일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종회 참석의원 일동

⊙종단임원

부 종 정	벽 송
총 무 원 장	무 진
종 회 의 장	도 전
종 회 부 의 장	일 휴
종 회 부 의 장	청 은
규 정 부 원 장	정 안
법 규 위 원 장	대 관
상 벌 위 원 장	구 산
포 교 원 장	청 운
종 학 연 구 원 장	소 연
강원교구종무원장	도 원
경기교구종무원장	성 민
서울교구종무원장	청 운
충남교구종무원장	혜 정
전불교구종무원장	혜 담
전남교구종무원장	천 수
경남교구종무원장	항 운
부산교구종무원장	혜 수
서부경남교구종무원장	운 제
충북교구종무원장	혜 공

⊙중앙종회의원

서울 : 청운
경기 : 성민
강원 : 일휴, 법선
충남 : 혜정, 청은
충북 : 혜공
경북 : 효담
경남 : 항운, 법은, 상운, 정안
서부 : 운제
부산 : 도전, 혜수, 법경
광주 : 천수
전북 : 혜담
제주 : 기용